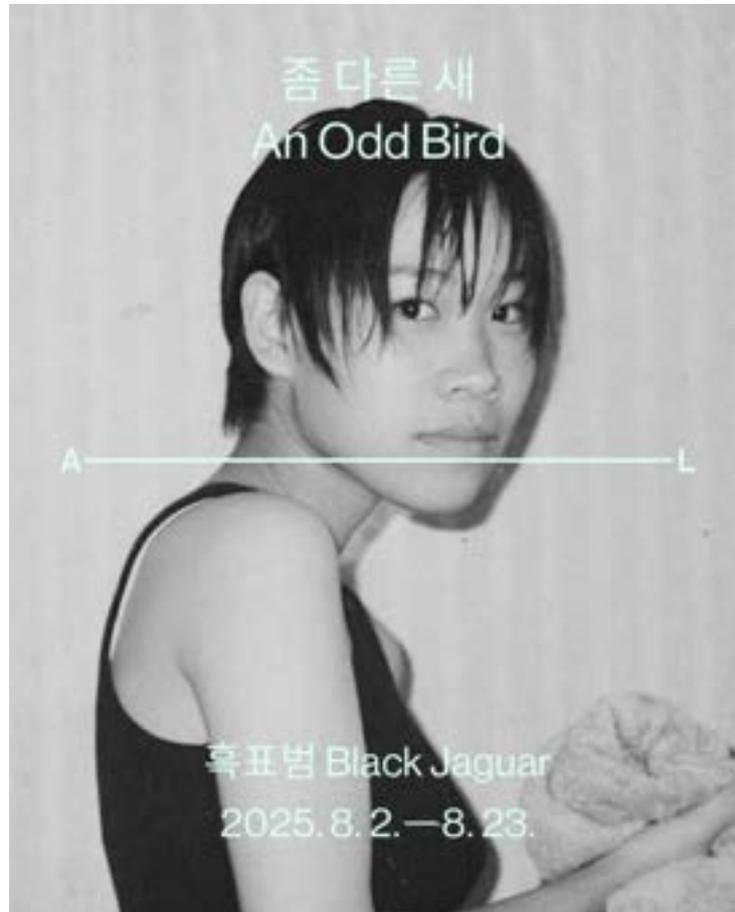


[Press Release] 총 10쪽

《좀 다른 새》



- 2025년 8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3주 간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되는 흑표범 개인전
- 픽션, 영상, 회화, 드로잉 등 다양한 매체와 장르를 넘나들며 ‘환대받지 못한 존재들’에 대한 섬세한 시선을 담아낸다.
- 갤러리 전시 공간 1층에서는 흑표범의 픽션-에세이 『좀 다른 새: 정하면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흑표범과 홍이현숙의 시 낭독 사운드를 배경으로, 관람객은 책 속 소챗터 중 하나인 <불새> 작업을 마주하게 된다. 2층엔 환대받지 못하는 작은 생명을 상징하는 죽은 새를 애도하는 비디오, 회화, 드로잉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된 작품이 전시된다.
- 갤러리 전시 공간 1층에는 드로잉 14점과 자전적 소설이, 2층에는 회화 7점, 드로잉 28점, 영상 5점, 조각 7점이 전시된다.

○ 전시 개요

전시 제목: 《좀 다른 새》

참여작가: 흑표범

일 정: 2025년 8월 2일(토) - 8월 23일(토)

장 소: 에이라운지(A-Lounge Contemporary)

(문의: 02-395-8135)

개관 시간: 화-토, 11 a.m. - 6 p.m. (일, 월 휴관)

입 장 료: 무료

웹 사이트: www.a-lounge.kr

*Press Inquiries: 김다혜 책임 디렉터 (hye@a-lounge.kr, 02-395-8135)

○ 참여 작가 주요 약력

흑표범 (b.1980)

흑표범 (b. 1980)은 한국 사회 안에서 소수자로 존재하는 여러 정체성들을 가시화하는 작업을 한다. 2007년부터 주로 퍼포먼스 미술을 주매체로 삼아 한국 사회의 공적 기억에 자신을 투과시켜 역사를 재기록하는 방식의 작업을 진행해왔다. 흑표범의 퍼포먼스는 비언어적 신체-소리들을 발산하고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국가 폭력과 트라우마를 애도하며 망각에 저항하는 공적 목소리를 재현한다. 이는 201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페미니즘 운동과 퀴어, 장애 등 여러 소수자 운동이 복잡하게 교차되는 흐름 속에서 더 강력해진 혐오와 갈등을 배경으로 정체성을 넘어 어떻게 연대가 가능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문화공간 비수기, 제주(2022); 플레이스 막 2, 서울(2021) 등에서 개인전을, «불타는 집», 에스더쉬퍼, 서울(2021); «바다는 가라앉지 않는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보안여관, 안산/서울(2019) 등에서 단체전을 가졌다. 『입속의 협업자』 (토탈뮤지엄 프레스, 2024)를 출판하였으며, 광주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 전시 내용

흑표범의 개인전 《좀 다른 새》가 오는 2025년 8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3주간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픽션, 영상, 회화, 드로잉 등 다양한 매체와 장르를 넘나들며 ‘환대받지 못한 존재들’에 대한 섬세한 시선을 담아낸다. ‘죽은 새’라는 이미지로 상징되는 존재들은 자본주의적 시스템, 가부장제와 같은 구조적 폭력 속에서 (사회적) 낙오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잊히거나 소외된 이들이다. 작가는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예술적 애도의 가능성을 되묻는다.

에이라운지 1 층에서는 흑표범의 픽션-에세이 『좀 다른 새: 정하연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흑표범과 홍이현숙의 시 낭독 사운드를 배경으로, 관람객은 책 속 소챗터 중 하나인 <불새> 작업을 마주하게 된다. 더불어 한쪽 공간에 마련된 녹음실에서 관람객은 본인의 이야기를 녹음하여 작가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좀 다른 새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죽은 것들 곁에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작가의 질문은 회화적 형상과 사운드, 텍스트의 층위를 타고 관람객에게 옮겨가며, 전시 공간은 일시적이지만 강력한 감응의 공동체로 전환된다. 2 층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죽은 새의 형상과 그것이 상징하는 존재들을 다룬다. 이곳에는 비디오 작업을 비롯해 회화, 드로잉 등 다양한 매체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이들 작품은 애도의 감정과 그 너머의 사유를 예술적으로 풀어내며, 소외된 존재들을 향한 시선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작가가 창조한 낯선 공동체의 공간으로 초대한다.

○ 전시 서문 (작가 노트)

죽은 새들이 잠든 방에서, 아직 날갯짓을 연습하기

푸드득 푸드득 푸드득

추락하는 동안에도 비행은 여전히 즐거움이었다.

너는 웃고 있었다.

등근 어깨에 늘 낡은 에코백을 메고

흰색 페인트가 점점이 얼룩을 그린 팔을 흔들며

다시 날아오를 내일을 너는 반드시 믿었다.¹

“죽은 것들 곁에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질문을 함께 탐색하기 위해, 내 기억 일부를 여기에 미술로 꺼낸다.

시작은 내게 중요한 한 여자를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점점 바깥으로 밀려나 결국 폐기되어버린 한 생애를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이라던가 ‘국가 부도’, ‘홀리스’ 같은 몇몇 사회문화적 용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나마 근접할 수 있는 시도는 차라리 나에 대해 쓰는 것이었다. 그건 구조하지 못한 타인을 두고 살아 남은 자의 슬픈 변명이자, 나의 처지에서 품었던 전복의 욕망과 예술적 실천을 들여다봄으로써 그와 내가 각자의 삶의 주체이자 연결된 존재임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동시에, 함께 있음으로써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상하고 말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2024년 초여름부터 2025년 봄까지, 『좀 다른 새: 정하연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언젠가 배가 오면 쓰려고 준비해 둔 부뚝가의 어망들처럼, 아무도 그것이 거기에 있는 줄 몰랐지만 막상 꼬트머리를 잡아당기자 술술 풀려나왔다. (우리는 모두, 창자 안에 이야기가 쌓여 있다.)

이 책은 오토 픽션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것의 모양이 실제 내 삶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별로 중요치 않다. 중요한 건, 이 타래들이 당신 안의 어떤 매듭과 연결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누군가의 기억을 통로 삼아 단 삼 주간 펼쳐지는 이 가상의 시공간이 당신에게 진짜 말을 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의 구체적인 기억이 당신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만이 중요하다. 어둠 속에서 귓가를 간질이는 타인의 입김, 몸과 몸이 닿으며 피어나는 온기 그리고 기억과 감정의 부스러기가 전하는 지금 여기, 그저 ‘자기 자신으로 살아있으라’는 명령.

A-L

‘역시 힙합을 해야 해.’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분노가 일었다.

대걸레로 더러운 화장실 바닥을 사정없이 문대면서 사장 새끼 욕을 했다.

이 부조리를 랩으로 고발할 수 없는 나의 미친한 음악성이 진심으로 한심했다.

난 더는 예술가가 아니라, 그저 당구장 아르바이트생일 뿐이었다.²

위키피디아는 ‘힙합’을 ‘튀는, 생기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악동’이라고 설명한다. 예술의 정의는 무한하지만, 나는 십 대 시절부터, 기성에 대한 불복종과 그저 나답게 존재하려는 욕망의 발로로 예술을 사용했다. 그리고 살아오며 만났던 나 같은 사람들과 예술 작업을 하거나, 그들이 하는 예술을 도왔다. 서로를 알아보고 함께하는 과정은 어린 시절 스카이⁴와 하던 놀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니, 분명히 거기에서부터 이어졌다. 그건 타인과 친구가 되는 일이었고, 나 자신과 친밀해지는 일이기도 했다.

두 손의 움직임으로 나의 새를 만듭니다.

새는 나 자신이기도 하고, 다른 존재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닌 것을 내 몸에 불러오세요.

나의 바깥과 친구가 되세요.³

환대 받지 못한 작은 생명을 몸으로 수행하는 작업, ‘(죽은) 새—되기’는 자본주의가 자행하는 생명에 대한 권력적 폐기에 저항하는 애도 행위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새는 오히려 호스트가 되어 당신을 이끈다. 그리고 낯선 공동체로 당신을 초대한다.

새와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이 이야기에서 마음이 닿은 문장을, 당신의 목소리로 다시 말해달라고.

흑표범 (작가)

¹ 『좀 다른 새 정하연 이야기』 중에서 시 <추락>, 흑표범, 2025

² 『좀 다른 새 정하연 이야기』, 흑표범, 2025, p.70

³ 『좀 다른 새 정하연 이야기』, 흑표범, 2025, p.125

⁴ 『좀 다른 새 정하연 이야기』에 등장하는 자아가 확고한 십 대 소녀. 정하연과 함께 교복을 벗고 밤거리를 놀러 다니며 자기들만의 안전지대를 구축한다.

○ 대표 작품



태초의 주술 *The primordial spell*

2025

Oil on canvas

33 × 33 cm



Birds

2023

Oil and charcoal on canvas paper

45 × 79 cm



끝 집 아이들 *Last house children*

2025

Oil on canvas

61 × 61 cm



Bird 26

2023

Oil and charcoal on canvas paper

41 × 33 cm

A-L

○ 전시 전경



A-L



A-L



* 모든 작품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사진 제공은 에이라운지입니다.

* All Images ©The artists, Courtesy of A-Lounge Contemporary, Seoul